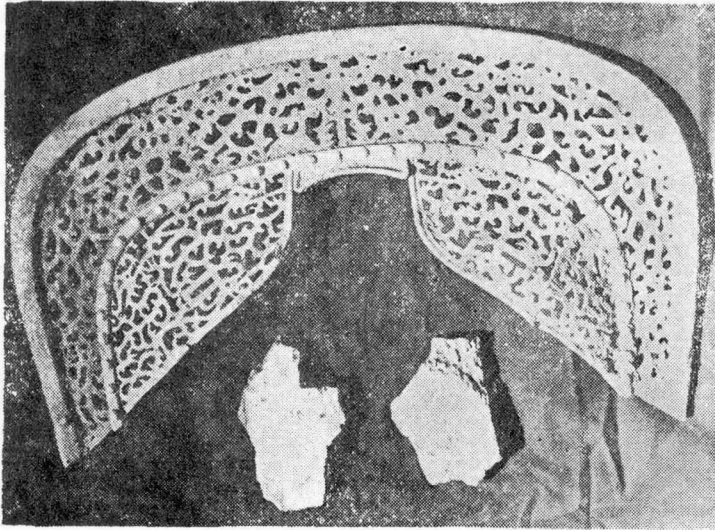


金銅鞍裝金具의 新例

秦 弘 燮

一九六二年十一月慶北安東一直面一古墳에서 盜掘하였다는 表題 馬具一點이 慶北大學校 博物館에 保管되어 있다. 同馬具는 이 金具 以外的 部分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으나(鈹具·雲珠等 破片이 있기는 하나 여기 附屬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金具만은 完全하여 매우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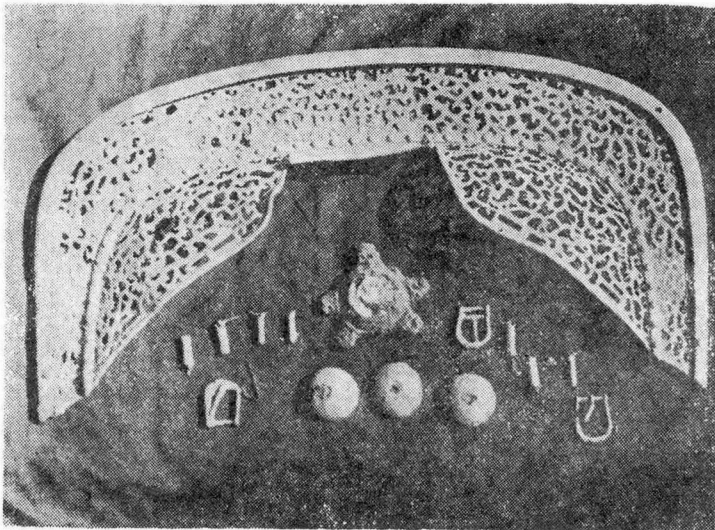


이 金具는 前輪과 後輪이 모두 完形을 이루고 鍍金은 거의 벗겨졌으나 間或 남은 곳이 있다. 樣式이나 透刻된 紋樣은 前·後輪이 同一하여서 넓직한 覆輪 밑으로 所謂海(ウミ)우미(이라고 부르는 部分)에는 이제까지 唐草文이라고 불려오는 紋樣이 透刻되고 所謂磯(イソ)이소(이라고 부르는 部分)에도 前者와는 若干 다르지만 비슷한

紋樣이 透刻되었고 그 사이에는 覆輪과 거의 平行되는 橫帶를 돌리고 木을 穿아 놓았다. 이 木들은 背面에 아직도 附着되어 있는 나무에 박혀졌으며 나무가 떨어져나간 部分에는 木들이 屛죽屛죽 나와 있다. 또 磯 下端에는 前輪에 左右各一個所와 後輪에 左右各二個所의 長方形 透孔이 있어 鞍裝을 固定시키기 爲한 鈹具가 달렸을 것이다.

이만큼 保存狀態가 좋았다면 附屬되었던 馬具들도 收拾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一切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完全한 狀態의 鞍裝 金具는 이제까지 發見된 일이 없고 더욱이 製作이 前例 없이 精巧하다. 特히 透刻紋樣은 비단 此種 遺物에서 뿐만 아니라 多方面으로 利用되는 紋樣이고 日本서도 같은 種類의 鞍裝金具에 비슷한 紋樣이 透刻된 例 가 있으나 모두 唐草 文樣으로 說明되어 있다. 이번 金具에 있어서도 前·後輪의 海나 磯部分의 紋樣이 中心線에서 左右로 거의 對稱되게 展開되었다. 여기 透刻된 紋樣은 普通 唐草文으로 불리우는 紋樣보다는 매우 復雜하고 特異한 形態를 보이고 있는데 大 遺物에 利用된 此種 紋樣도 모두 같은 特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紋樣들이 果然 唐草文의 一種인지 或은 動物文의 修

文樣으로 說明되어 있다. 이번 金具에 있어서도 前·後輪의 海나 磯部分의 紋樣이 中心線에서 左右로 거의 對稱되게 展開되었다. 여기 透刻된 紋樣은 普通 唐草文으로 불리우는 紋樣보다는 매우 復雜하고 特異한 形態를 보이고 있는데 大 遺物에 利用된 此種 紋樣도 모두 같은 特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紋樣들이 果然 唐草文의 一種인지 或은 動物文의 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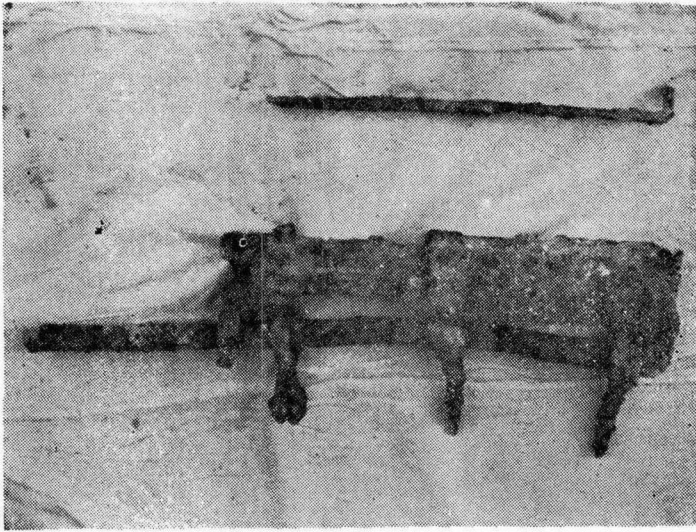
飾變形된 것인지 萬若 그렇다면 그淵源이 어디 있는지에 對하여는 한 번 考察해 볼 必要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크기는 다음과 같다.

前輪 幅	四〇・五 cm	高	二五 cm
後輪 幅	五六・五 cm	高	三〇 cm

〔附記〕 「前輪」 「後輪」 「海」 「磯」等 日本通用語를 그대로 使用하였다

百濟鐵製鎖金

洪 思 俊



五月初旬 扶餘郡 教育課主管으로 扶蘇山美化的 一環策으로 軍倉址를 中心해서 三忠祠에서 雙北里後麓을 斜線을 그어 散策路를 開拓하는데 (扶蘇山의 門外城址 안 쪽으로) 俗稱 매재골을 에워싼 羅城의 東部城(뒤개)便 若干低陷된 地點에서 百濟當時의 것으로 볼 수 있는 鐵製鎖金具 一切가 路面作業中出土 되었다. 이 鎖金은 百濟國이 滅亡하

던 때에 木造建物인 城門이 消失되고 城門에 달았던 鐵製의 鎖具만 地下一千餘年이나 埋沒된 것으로 推測된다. 當時 銘文瓦와 釜鼎으로 볼 수 있는 鐵片도 城門附近에서 若干 出土되었다.

四角진 자물통에 혀(舌)가 달린 자물쇠가 끼었는데 자물통머리에는 ㄱ字로 둥근 鐵棒을 (長一・一七尺 東魏尺一尺에 近) 붙여 만들고 자물쇠 後尾에는 角진 鐵板에 圓孔이 뚫려서 자물통 鐵棒이 꿰여 있다. 이 자물통 鐵棒에는 아직 도 門板木에 박아졌던 門쇠 二個(한개 鐵을 휘어 兩端이 尖한)와 다른 한쪽 門쇠가 달려 있다. 그리고 열쇠를 집어 넣어서 열 수 있는 구멍이 자물통 머리 下部에 一字로 뚫여 있다. 이 鎖金이 出土된 附近에서 다시 열쇠로 볼 수 있는 (長六・九寸) ㄱ字 鐵片이 나왔었다. 위와 같이 確實히 扶蘇山城 城門址에서 千三百年前의 百濟鎖金具가 發見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日政時에 扶蘇山에서 出土되었다는 同形의 鐵製鎖金의 一部分을 扶餘博物館에서 所藏하고 있음을 아울러 紹介한다.

昌慶宮 明政殿의 墨書銘

申 榮 勳

都提調 右議政 鄭昌行 例兼提調 兵曹判書 朴承宗 工曹判書 李尙毅 戶曹判書 李廷龜 提調 禮曹判書 李爾瞻 判尹 李冲 戶曹 糸判張晚 刑曹糸判 兵曹糸判 李 中使 花城君 趙龜時 內侍府 尙膳 金逸 都廳 司 寺 趙有道 言正郎 權弘道 以下 十行未詳 李欽 主簿 趙 鄭敏 判事 李 韓濟演 義 奉事 具 洵 豐儲倉奉事 鄭文晦 前 奈奉 李晨英 前司 李義崇 前司 金權 萬曆四十四年二月 (向右側합각머리內側, 長九尺, 高一・一尺의 板子에서 發見, 墨書, 楷字, 字徑一寸一九六三年六月 明政殿及 同廻廊 重修時 發見)